

2023 10
제225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02 좋은 글, 좋은 시

03 구정소식

04 구정소식

05 [인터뷰] 이일영 어르신

06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대전시자원봉사연합 대덕구협의회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08 열린의정

10 책책책! 책을 소개합니다

11 대덕톡톡

10월 바람은 기억을 깨우고

높다란 하늘에 바람으로 닿았던
황량해진 가을 숲이다
달님에게 빌었던 소원이
때론 소나기로 머물던 그대 목소리가
바람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다
제 높이만큼 추억을 쌓아놓고
침묵 속에 살고 있는 벅찬 하루다
햇살을 심어놓은
박을 매단 초가집 지붕이 늙어가던
잊혀진 계절이 강타하는 10월,
절실한 그리움은
불을 끈다고 사라지거나
어두워지는 건 아니다
계절이 가고 올 때마다
조금씩 앓아야 한다면
한꺼번에 앓았으면 좋겠다
남은 삶의 변명처럼

강옥희(시인, 대덕문화회 회원)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 : 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3년 10월 5일(제225호)

“우리 아이 건강 챙기세요”

대전 대덕구육아종합마더센터
유아차 살균 소독기 설치



대덕구 육아종합마더센터에 미세먼지, 황사 등 기관지 질환과 코로나19, 독감 등 바이러스성 질환의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어르신을 위해 ‘유아차 살균 소독기’가 설치됐다.

유아차 살균소독기는 가정에서 소독하기 어려운 유아차, 카시트, 휠체어, 보행 보조기, 대형 장난감 등을 살균 소독할 수 있으며, 자외선을 이용한 친환경 방식 소독으로 각종 세균·바이러스를 99.9% 제거할 수 있어 감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3중 안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소독 중 문을 열거나 사람이 소독기 안에 들어갈 시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아차 살균 소독기는 대덕구육아종합마더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미용업 대상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오는 27일까지 662곳 대상… 업종별 3개 영역 평가

대덕구가 지역 이·미용업소 662곳을 대상으로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며, 올해 구의 평가대상 업종은 이용업 73곳, 미용업 589곳이다.

평가는 지난 9월 1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29일간 진행되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자가 업소에 방문해 준수 사항,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 사항 등 업종별 3개 영역 26~29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90점 이상), 우수업소(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업소(80점 미만)로 등급이 부여되며, 최우수 업소(녹색 등급)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현장 계도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주민 위한
‘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



대덕구가 내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64%(약 41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CMS 분납)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납을 예방하고자 ‘외국어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외국인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대전K-뷰티포럼 뷰티봉사단’ 발대

단원 60여명 지역사회서
이·미용, 네일 등 뷰티 봉사 나서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는 뷰티산업 종사자 60명과 함께 대전K-뷰티포럼 뷰티봉사단(단장 박현아) 발대식을 갖고 본격 봉사활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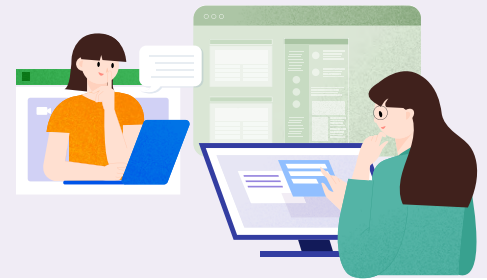
‘대전K-뷰티포럼’은 2022년 이·미용, 헤어, 네일 등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발족한 단체로 지난 6월 대덕구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 내에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박현아 대전K-뷰티포럼 뷰티봉사단장은 “단원분들과 함께 뷰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은 물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움에 배움을 더하다 ‘토요 잡학학교 시즌 2’ 운영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재테크 · 인문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대덕구 평생학습원이 내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배움에 즐거움 더하기, 토요 잡학학교 시즌 2’를 운영한다.

촉촉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전시민대학 권역별 캠퍼스 사업’ 연계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구민 수요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 강사가 핵심 특강 및 실습을 진행한다.

10월에는 우리 생활과 관련이 깊은 건강, 스마트폰 활용 등 ‘스마트한 생활’, 11월에는 메타버스, 영화로 읽는 삶을 주제로 하는 ‘명강사

따라잡기’로 교육이 마무리 된다.

수강 신청은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www.daedeok.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강좌별 30명씩 선착순 마감된다.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평생학습과(☎042-608-64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생학습원은 ‘토요 잡학학교 시즌2’ 프로그램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지원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벗 삼아 달려보세요”

오는 15일 대청공원에서 제22회 **대청호** 마라톤대회 개최



최근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헬스, 테니스, 골프, 클라이밍 등 다양한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특히나 달리기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사람들에게 달리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물어보면 “특별한 장비 없이 달리는 데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하곤 한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야외 운동, 즉 달리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그 때문인지 전국 각지에서 마라톤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우리 대덕구도 오는 15일 대청공원에서 ‘제22회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달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터 대회 참가 접수를 진행해 건강코스(5km) 1204명, 미니코스(10km) 1625명, 하프코스(21.0975km) 608명 등 당초 계획했던 3000명을 넘어 총 3437명이 몰려 참가 신청을 조기 마감 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가족과 연인들의 참여가 많았던 건강코스(5km)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많은 인원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대청대교네거리 ~ 대청공원 ~ 효평삼거리 등 마라톤 코스 구간 내 전면 교통통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국지도 32호선(용정초교 뒷길)과 석봉초등학교, 대청중학교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임시주차장 및 신탄진역 맞은편부터 대회장까지 셔틀버스도 운행(7:00~8:30, 11:30~13:00)한다.

빼어난 자연 속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며 달릴 수 있는 이번 ‘22회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



“더 어려운 이웃 위해 써달라”

기초수급 87세 이일영 어르신, 10년 모은 생계비 1000만원 기부

노인일자리사업 7년간 참여해 성금 모아 40만원 남기고 모두 기부

월 수급비 60여만원... 10년 전 위암 수술도 받아 건강

“평생 숙제 해결 기뻐... 이웃들이 이웃을 돌보는 세상 되길 희망”

한 달 생계도 빠듯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전 대덕구 법2동에 홀로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일영(87) 어르신이다.

이 어르신은 최근 대덕구 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약 7년간 참여한 노인일자리 활동비와 생계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1000만원을 기부하고 남은 통장 잔액은 40만원. 자신의 최저 생계비조차 남기지 않고 몽땅 내놓으신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기부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만류했지만, 어르신의 신념은 바뀌지 않았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이일영 어르신의 기부는 감동을 넘어 숙연함마저 느끼게 한다.

이일영 어르신의 한 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30만원, 기초연금 32만원, 주거급여 6만원 등 60여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구순에 가까운 연세서서 병원 등 건강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모든 걸 기부하셨을까?

이유는 다름 아닌 행복이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치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실천만으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행복 찾기’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일영 어르신은 “어렸을 적 이웃에 의로 맺은 형님이 사셨는데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쳐 주신 사람이 사람답게 오래 사는 방법인 ‘마음을 비우자. 욕심을 내지 말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자’ 등 세 가지를 그냥 실천하고 살았을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일영 어르신은 가정형편도 어려웠었지만,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2년 전에는 함께 살던 큰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등지는 등 삶의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게다가 10년 전에는 위암 수술까지 받는 등 건강마저도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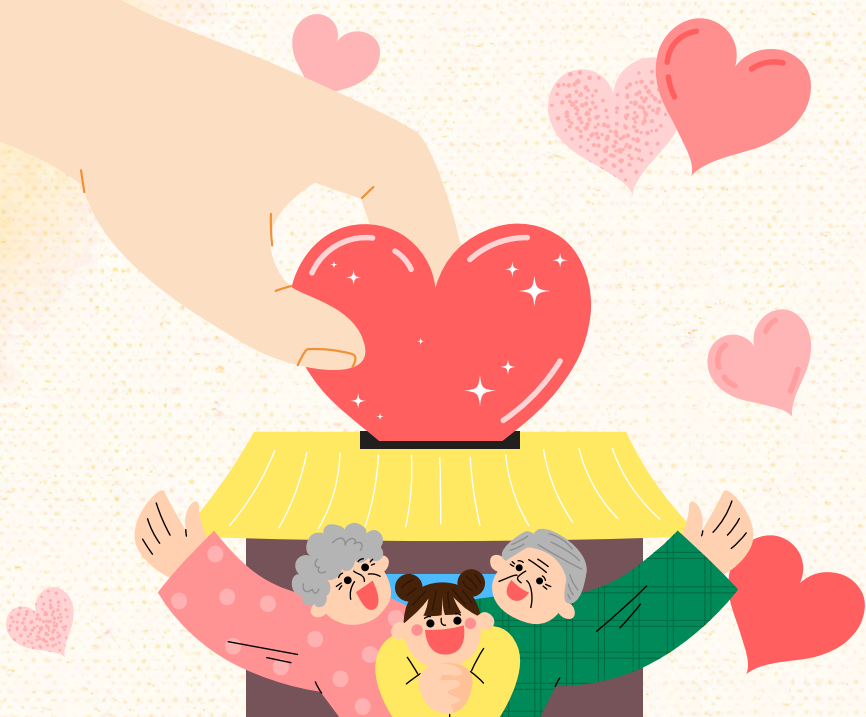
병원 치료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다른 지역에 사는 둘째 아들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일영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 수혜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때 다시 한번 남다른 의지와 용기를 드러냈다. 수급비를 받는 대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꾸준히 참여했다.

노구(老耄)로 때론 일하는 것이 힘에 부쳤지만 일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는 이 어르신은 “배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안다”는 말처럼 제가 고생을 해보니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살아생전 저 또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지난 10년간 생활비를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 온 것을 이번에 기부하게 됐지요”라고 설명했다.

평생의 소원이자 숙제를 해결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자유롭다는 이일영 어르신. 자신의 선행이 결코 위대한 일이 아니라고 겸손의 손사래를 쳤다.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가진 것 없는 저의 결심, 그리고 행동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사라지고 가지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현대인의 삶. 진정한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이일영 어르신의 선행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에 충분함이 느껴진다.



“인간의 행복한 삶, 봉사에 있습니다”

대전시자원봉사연합
대덕구협의회



2005년 창립돼 모범운전자회 · 해병대전우회 등 500여명 활동
호우피해 자원봉사 · 밑반찬 나눔 등 도움 필요한 곳에 손길 펼쳐
코로나19 확산 초기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가장 먼저 나서 ‘눈길’
조한경 대덕구자원봉사협의회장 “자원봉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는 누구나 다르다. 하지만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점은 같고,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인생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 바로 ‘대전시자원봉사연합 대덕구협의회’이다.

대전시자원봉사연합 대덕구협의회(이하 대덕구협의회)는 지난 2005년 창립돼 모범운전자회, 해병대전우회, 한국타이어 한마음가족봉사단 등 총 16개 봉사단체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덕구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설 떡국떡 나눔 △추석맞이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복지관 등 삼계탕 나눔 △사랑의 생필품 키트 나눔 등 정기적 활동과 함께 △호우피해 자원봉사 △마을 가꾸 벽화그리기 등 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내 일처럼 손을 보태고 있다.

이 대덕구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조한경(66·사진)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회장직을 맡아왔다. 그는 대화동 주민자치회에서 20여년 넘게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인물이다.

조한경 회장은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유기적으로 조정·분담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요”라며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과 참여, 그리고 역량은 5개 구중 대덕구협의회가 최고입니다”라고 한껏 추켜세웠다.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에 관해 묻자 조 회장은 지난 3년간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를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안내 등을 맡아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대덕구자원봉사협의회가 가장 먼저 나섰던 것.

조 회장은 “솔직히 처음 봉사에 나설 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방역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의료진들의 모습 속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발렌티어(volunteer)정신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니다. 함께 해 준 협의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조립키트로 구성된 동글게차(보행보조기)를 조립해 200여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한 사업도 매우 뜻깊은 봉사였다고 소개했다.

사실 조 회장도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단어 그 자체로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봉사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조그마한 손길과 마음이 닿는 부분에 행복해하고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고 봉사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특히 △남을 도와주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더 많이 얻고 배운다 △봉사활동은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남을 돕고 있다 등 선배 자원봉사자들의 말이 비로소 이해됐다고 한다.

조한경 회장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됐던 자원봉사 활동이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전에 비해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대덕구의 지원으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2층 내 사무실 일부에 협의회 업무 공간이 마련돼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공모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다 보니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대덕구민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구가 자원봉사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인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조한경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보람은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동참해 줄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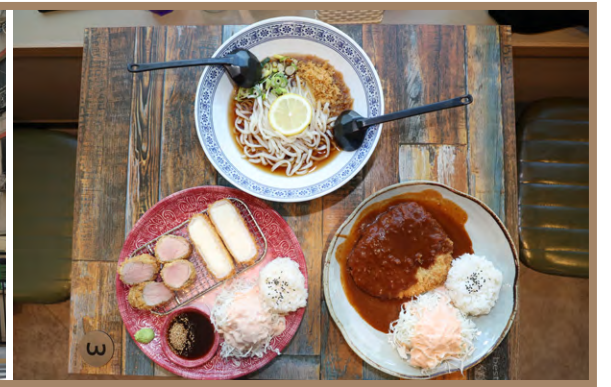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진정한 수제 돈가스 맛 '돈까스, 정화'

- 대전 대덕구 대청로 58(신탄진동 126-6 1층) / 0507-1441-1533
- 경양식등심가스 1만원, 두툼안심가스 1만2000원
통모짜치즈가스 1만3000원, 우삼겹크림파스타(생면) 1만6000원
우동(생면) 8000원
- 영업시간 화~토 11:00~20:00 / (브레이크 타임 14:00~17:00)
일(11:00~ 15:00) /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브레이크타임 : 평일 15:00~17:00, 주말 16:00~17:00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을 지칭하는 수제(手製). 생각보다 손이 꽤 많이 가기에 수제 음식은 그 정성의 특별함과 장인 정신이 돋보인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는 바삭한 튀김 속에 부드러운 살코기,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수제 돈가스 전문점이 있다.

신탄진동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돈까스, 정화(대표 정석길 · 박정화 부부)'는 돈가스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더니 이른 점심시간에 가도 웨이팅을 감내해야 할 정도로 손님들이 몰리고 있다.

사용되는 재료와 준비과정을 보면 왜 수제인지, 남다른 맛을 내는 비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부부는 1등급 국내산 돼지를 우선 숙성한 후 이물감이 없도록 근막과 지방을 손질한다. 이후 오직 소금과 후추만으로 염지해 밀가루 · 계란 · 빵가루로 작업 후 매일 정제된 깨끗한 기름에 튀겨낸다.

소스 역시 시판용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든다. 토마토를 주재료로 사용해 밀가루 버터를 장시간 볶아 루(프랑스 요리에서 밀가루와 버터를 가열하여 만드는 소스의 재료)를 쓰고 양파를 카라멜라이징 해 만든다.

'돈까스, 정화'는 2023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에서 외식업 분야 대전 대덕구 돈가스 부문 우수

업체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탄탄한 요리 실력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사실 남편 정석길씨는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등 외식업에서 15년을 넘게 일한 베테랑 요리사다. 또, 아내 박정화씨는 마케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마케팅 전문가다.

정석길 · 박정화 부부는 “수제음식 특성상 브레이크타임에도 재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손님을 맞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라며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돈까스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주당들이 즐겨 찾는 40년 노포

대구탕 전문 '한마당식당'

- 대전 대덕구 석봉북로 27(석봉동 305-19) / 042-932-8091
- 대구매운탕 1만2000원, 대구지리탕 1만2000원(2인 이상 · 공깃밥 별도), 대구뽕찜 3만5000원(中)
- 영업시간 11:00~21:00(매일) (브레이크타임 15:00~17:00)



3일과 8일에 열리는 전통 오일장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 장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초입을 지나 좁은 골목길에 접어들면 주당(酒黨)들이 즐겨 찾는 40년 노포가 있다. 크고 흥측(?)한 입의 특징이 그대로 이름이 된 대구(大口)탕 전문점 한마당식당(대표 김인환)이다.

이 식당의 메뉴는 대구를 맑게 끓여내 깔끔한 맛의 '대구지리탕',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함 매콤함을 더한 '대구매운탕', 대구의 머리에 채소와 갖은 양념을 넣고 국물을 바투하게 한 '대구뽕찜' 등 딱 세 가지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김인환 대표는 어린 자녀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고, 그 돌파구로 대구탕을 선택했다고.

김 대표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고, 시아버님이 대구탕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업으로 삼게됐습니다. 바로 인근 골목에서 20년, 이곳에서 20년 등 40여년을 대구탕과 함께 했지요”라며 그의 세월을 회상했다.

대구탕은 국물 맛이 깊고 시원해 해장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담백한 요리다. 미나리와 파, 무 등 각종 채소가 들어가 국물 맛이 더욱 깔끔하며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자주 먹어도 부담이 없다. 또한

대구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간 기능 보호에도 효능이 있다고 한다.

재료가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지만 비린내 없이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애주가들의 뱃속을 달래주는 것은 물론 밥맛이 없을 때 입맛을 찾는데 대구탕이 제격이라는 김인환 대표는 “어느덧 80대 중반에 접어들어 때론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손님들에게 40년 대구탕 깊은 손맛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덕구의회 '9월 임시회'로 민생 살피

14~22일 제271회 임시회 진행... 제2회 추경 처리·현장방문 진행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9월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의사일정을 본격화했다.

구의회는 지난 9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제271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5분발언, 현장방문 등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효서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재난대피용 방면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대웅 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준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안(김기흥 의원)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연 의원) 등이 있다.

5분 발언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촉구(박효서 의원) △민생에 초점 맞춤 예산 편성 필요(김기흥 의원) △신탄진 악취 대책 마련 촉구(유승연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제안(양영자 의원) 등을 주제로 했다.

또 구의회는 향후 1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약 31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살폈다.

이와 함께 회기 중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와 대전열병합발전(주) 등 주요 사업장을 현장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정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김홍태 의장은 "올여름 지났한 폭염과 극한호우, '묻지마 범죄'까지 더해지며 주민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의정 참여와 활동을 통해 민생에 귀 기울이고 살피는 대덕구의회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덕구의회, 정책개발 위해 현장 찾아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주요사업장서 구정추진 방향 모색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김홍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지난 9월21일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대전열병합발전(주), 안산도서관,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를 각각 현장 방문했다.

이들은 기관별로 국방부 산하기관 운영 시스템, 지역 에너지 허브, 문화 여가시설 등을 주제로 운영사항 파악과 점검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기관별 주요 사업과 연계한 정책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협조 사항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준 각 기관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란 말을 새겨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효서 의원

주목
이
조례

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응 근거 마련

박효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근거가 담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시행 계획 수립, 지역 협력체계를 활용한 피해자 적극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
분
발
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강조

박효서 의원은 지속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 연령에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교육과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대웅 의원

주목
이
조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추진

조대웅 의원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예우 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전상·공상군경유공자로 추가·확대한 바 있다.



이준규 의원

주목
이
조례

공무원 복지 형평성 확보 나서

이준규 의원은 대덕구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전시 등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발생하는 공무원 간 후생복지 차등을 고려한 것이다.



김기홍 의원

주목
이
조례

은둔형외톨이 보듬는다

김기홍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담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원사업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발견·상담 △교육·훈련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보호자·가족 대상 상담·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
분
발
언

민생사업 예산 우선 편성 주문

김기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생사업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구민 생활과 생계에 영향을 주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예산 우선 편성 당위성을 역설했다.



양영자 의원

5
분
발
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 반영 필요"

양영자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주요 간선도로에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소통으로 보행자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목
이
조례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유승연 의원은 대덕구 거주 여성청소년(9~24세)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린 문화의 거리 지정 근거가 담긴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도 발의했다.

5
분
발
언

신탄진 악취 대책 마련 촉구

유승연 의원은 신탄진 권역 악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올해에만 이 지역 악취 민원이 모두 169건에 달한다"면서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시설개선 등을 유도해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유승연 의원

사서의 소소한 책 꾸러미 ‘사소한 책’

10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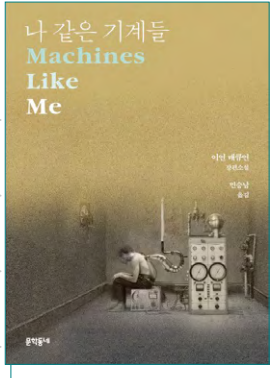
과학과 상상이 빚어낸 이야기

과학적 사실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Science Fiction!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푸른 살
/ 이태제

폭력성을 먹고 자라는
‘푸른 살’에 점령당한 인류!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갈등을 통해 인간성의
본질과 선악의 의미까지
생각해본다.



나 같은 기계들
/ 이언 매규언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가상의 과거를
배경으로 인류 최초의
인조인간을 손에 넣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를
집요하게 물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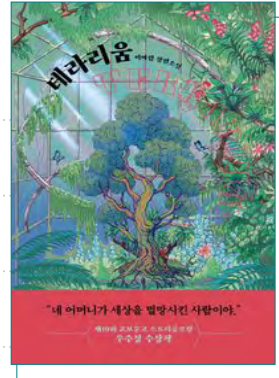
꿀벌의 예언 1, 2
/ 베르나르 베르베르

2047년 7월을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꿀벌이
자취를 감추자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
식량난으로 벌어진 제3차
세계 대전과 인류의 멸종
위기!



메타버스 유령
/ 광재식 외

메타버스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 신기술 뒤에
가려진 이면의 세계 -
금융 사기, 성범죄, 사회
공학과 휴먼 해킹까지,
4인 4색의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테라리움
/ 이아람

인류가 멸망한 미래,
살아남은 소년은 사라진
엄마를 찾아 죽음의 화신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한다.
초월적인 존재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진실들을
알게 되는데...

* ‘사소한책’은 대덕구 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주제를 선정해 관련도서를 추천합니다.

잊혀가는 대덕의 수물마을을 찾아서

황호동

3면이 금강을 품은 물의 정원 <황호동>

대청댐 건설로 마을 전체수몰... 대청호 상에 작은 무인도만 남아
수몰 이전 곡산연씨 집성촌... 실향 이품 유난히 깊어

황호동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소속된 법정동이다. 대덕구 북동쪽에 자리하며, 서쪽으로는 미호동, 남쪽으로는 부수동, 동쪽으로는 충북 청주시 문의면과 접한다. 황호동은 금강이 남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굽을 이루었다 해서 느루꾸지·느릅고지·황곶·황호라 불렸으며, 곡산연씨 집성촌이었다. 누루꾸지·서당골(한정)·지락이(지명이)·형지원(성지원)·양지말·음지말(감나무골)·너멍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으나, 대청댐 건설로 모두 수몰됐다. 따라서 현재의 황호동은 대청호 상에 조그마한 무인도로만 남아 있다.

대덕문화원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사업’에 참여한 연사흠 구술자는 1953년 대덕구 황호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청댐 건설로 인해 마을 전체가 수몰된 황호리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풍경을 소개했다.

연사흠 구술자는 “정부가 댐 건설을 이미 계획했는지 전기시설 설치 자체를 하지 않아 수몰 이전에도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라며 “댐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을이 수몰되는 것을 실감했다. 참 허망했다”라며 실향에 대한 아픈 기억을 회상했다.

그는 수몰로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떠도는 삶을 살아왔다. 건설일을 하면서 허리를 다쳐 생계를 꾸려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재활에 성공하며 현재는 풍수지리사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다.

1936년 황호동에서 태어난 연규식 구술자는 수몰 전 이곳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삼정골 대장간을 30여 년 운영했다. 그는 “동네에 전기를 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몰된다는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다”라며 “우리 동네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는구나 절망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후 청주로 이주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그는 집 가까이에 마련한 텃밭을 가꾸며 한평생 수고롭게 산 삶을 내려놓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참고자료〉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결과집 · 스토리북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 손으로... 대덕구 마을축제 개최



오는 지난달 8일부터 12개 동 마을축제 열려
이달 9개 동 축제 '팡파르'... 주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대덕구의 12개 동에서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축제를 연다. 마을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진행까지 준비해 '지역 맞춤형 축제'라는 점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대덕구 마을 축제는 지난 9월 8일 '송촌, 가을을 품다'라는 주제로 송촌동이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다음날인 9일 대화동, 15일 회덕동이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달에도 주민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마을 축제가 이어진다.

우선 신탄진동은 오는 7일 오후 1시 용정초교 운동장에서 '우리는 찐! 신탄진동 스타일'라는 제목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어 목상동은 10월 15일 오후 2시 목상체육공원 '오순도순 주민소통' 축제를 개최하며, 오정동은 10월 20일 오후 4시 효성공원에서 '무지개 축제'를 진행한다.

오정동 무지개축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자랑, 공연, 체험&먹거리

부스가 준비돼 있어 가을밤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21일에는 비래동 '올래!놀래!비래! 마을축제'(오전10시·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법2동 '대덕예술난장축제'(오후 1시·법동시장 일대), 법1동 '마을축제 너와나우리다함께'(오후 2시·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석봉동행복마을축제 '핑크물리'(오후 2시·금강로하스공원) 등 무려 4개 마을에서 축제가 열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법2동 '대덕예술난장축제'는 주민자치회와 대덕문화관광재단 공동 주관으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어 10월 28일에는 덕암동 '덤바WE주민화합축제'(오후3시·새뜸공원), 중리동 '중리행복길 시월애(愛)축제'(오후4시·동 행정복지센터 앞)가 열리며 대덕 마을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10월, 우리 대덕구 마을 축제에서 낭만과 정취를 만끽해보는건 어떨까.

구민 기고

노을

이규영(대덕구 오정동, 1937년생)

저녁 노을 짙어지는 황혼에
내 마음 물들고

소식 없이 불어오는 미풍에
내 가슴 어루만져 주고

하늘에 한가로운 흰 구름은
내 영혼 실어가고

유수와 같은 세월은
내 인생을 실어가고 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기간 2023. 9. 1. ~ 11. 30.(3개월)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시
 - 부동산과 예금, 급여 압류
 -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 관허사업의 허가, 인가, 면허의 취소 또는 제한

납부방법

구분	방법
이체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ARS 납부	· ARS 042-720-9000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안내
인터넷 납부	· 위택스(지방세)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금융기관 방문	· 금융기관 ATM기 이용하여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문의 : 대덕구 세원관리과 (지방세 ☎042-608-6246)
(세외수입 ☎042-608-6247)

대청문화전시관 10월 전시 계획

● 전시 기간 : 23. 10. 03 ~ 23. 10. 29

전시회명	기간	전시실	전시작품 작가
까치와 호랑이 민화 회원전	23. 10. 03 ~ 23. 10. 15	제1 전시실	유해순 작가 (대전민화공방)
현대서각	23. 10. 03 ~ 23. 10. 15	제2 전시실	최재영 작가 (청주서각회)
캘리그래피 생활속의작품	23. 10. 18 ~ 23. 10. 22	대덕전시실	이향화 작가
색연필화	23. 10. 24 ~ 23. 10. 29	제1 전시실	김미원작가 (미사모)

